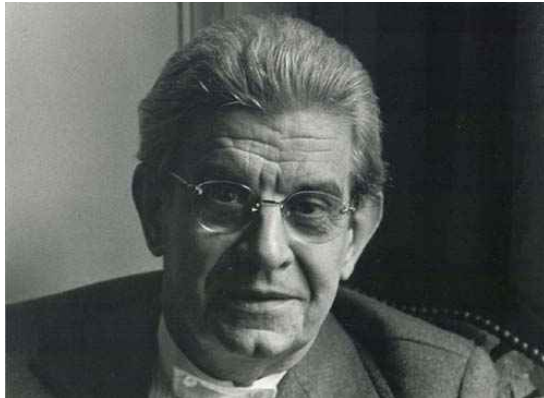


정신분석학의 현대적 의미- 라캉을 중심으로

1] 자크 라캉 Jacques Lacan (1901-1981)은 누구인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정신병의 하나인 편집증(Paranoïa)에 관한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정신분석이론을 연구하면서 전후 프랑스 정신분석을 대표하는 선두주자가 된다. 1953년부터 '프로이트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국제정신분석협회' IPA(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에 맞서 정신분석이론의 새로운 혁신을 주장한다. 라캉은 철학, 언어학, 인류학의 성과를 접목시켜 정신분석을 말하는 주체의 과학으로 재창조 하였다. 그리고 무의식의 언어적 본성과 욕망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신분석이 오늘날 인문학과 예술비평의 토대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주요 저작으로 『에크리, *Écrits*』를 남겼으며, 1953년부터 1980년까지 지속된 전 27권 라캉 세미나의 출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연표-

- 1901 파리에서 출생.
- 1919 스타니스라스(Stanislas) 중학교를 졸업. 1916년부터 의학도를 지망.
- 1932 의학박사 논문 발표. 뤼돌프 뢰벤슈타인(Rudolf Lœwenstein)과 함께 수련분석을 시작. 《인격과 관련된 편집증적 정신병에 대하여 *De la psychose paranoïaque dans ses rapports avec la personnalité*》
- 1933 코제브(Kojève)의 세미나 시작.
- 1934 파리정신분석학회(Société Psychanalytique de Paris-이하 SPP)에 가입.
- 1936 개인병원 개업. 처음으로 마리엔바트(Marienbad)에서 있었던 국제 정신분석협회 (Association Psychanalytique Internationale-IPA)의 회의에 참가하여 거울 단계에 대한 짧은 보고를 하지만 의장-존스(Jones)-에 의해 중단.
- 1942 릴(Lille) 거리 5번지에 있는 아파트에 정착하여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됨.
- 1953 SPP로부터 분리. 대립적인 두 경향을 나타내는 라가쉬(Lagache)와 라캉에 의해 추진된 정신분석 프랑스학회(Société Française de Psychanalyse- SFP) 창설. 선언문 형태를 띤 로마강연.

- 생트 안느 (Sainte-Anne) 병원의 대강당에서 세미나가 공개적으로 진행됨.
- 1963 SFP와 IPA의 교육법 전문가의 명단에서 제명됨. 세미나는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에서 재개.
쇠이유(Seuil)출판사의 프랑스와 발(François Wahl)과 출판계약을 맺음.
- 1964 파리 프로이트학교(Ecole Freudienne de Paris-EFP) 창설.
- 1980 마지막 세미나. EFP의 해체. 프로이트주의파(Cause freudienne) 창설.
- 1981 프로이트주의학교(Ecole de la Cause Freudienne-ECF)가 프로이트주의파
를 계승함. 9월 9일 라캉 사망.

② 주요 쟁점과 이론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신경증(Neurosis), 도착(Perversion), 정신병(Psychosis)을 정신의 기본 구조로 보면서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은 병리적 주체를 치료하는 교정의학이나 임상심리의 하위 분과인가? 아니면 사회의 모든 현상을 개인의 심리에서 유추해 설명하면서¹⁾ 심리적 인과성을 통해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심리적 환원주의의 이론인가? 개인의 심리발달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사회와 문화의 토대로 분석하는 프로이트의 사상은 확실히 개인과 사회의 구조적 유사성을 전제한다. 또 『문명 속의 불만』에서 언급했듯 사회적 삶과 타자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기서 개인과 사회적 영역의 관계와 본질에 대해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확장이 아니며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정신활동이 개인 심리학의 영역으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또 개인과 사회가 마냥 대립하면서 사회적 압력이 개인에게 억압처럼 전가 되는 것만도 아니다.

- 사회적인 것은 물론 주체조차 항상 기표와 기호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므로 상징계에서 주체의 안정된 정체성은 불가능한데 현실 자체가 단지 심리적인 소여와 이미지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고정성을 가정하고 이로부터 특정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오류라는 얘기가 도출된다.
- 사회적인 것에 대한 라캉의 접근은 구성주의도 객관주의도 아니다. 삶과 사회적 현실은 환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현실이 더 중요하다.

☞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é)** : 라캉은 순수한 개인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호 주체성의 구조(내부와 외부의 일치, 두개의 결여)에서 주체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정신분석학은 그 자체로는 개인 심리학도 사회심리학도 아니다. 주체와 존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가 임상에서 중요함을 라캉은 강조하는데 언어의 효과가 인간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상호관계에서 억압과 관련해 초자아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라캉은 언어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나중에 가면 라캉 스스로 상호주체성의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무의식의 초개인적 본질은 계속해서 강조한다. 무의식에 대해 라캉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 “무의식, 그것은 정치적이다.”
- 무의식은 주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고, 그것 홀로 말한다.
- “무의식은 주체의 의식적 담론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체가 보유할 수 있는 것에 결

1) 프로이트는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서문에서 개인심리학은 사회 심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문명속의 불만』, 『토텐과 터부』 같은 책에서 아동의 성적 발달과 문명화 과정의 구조적 유사성을 강조한다.

뽑힌 초개인적인 구체적 담론의 부분이다.

- “무의식의 지위는 윤리적이지만 존재적이지 않다.” 억압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다.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 **주체에 관한 입장** - 라캉이론의 정치철학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체를 절대부정하지 않지만 고전적인 철학의 주체 (실체, 동일성, 기원)는 거부한다. 라캉의 주체형성모델은 프로이트가 《쾌락원리를 넘어》에서 분석한 fort-da 놀이가 예시한다. 라캉의 주체 개념이야말로 포스트구조주의 이후 정치사상적 논란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론적 중요성이 크다.

- 투명한 자의식과 자유 의지에 입각한 결단의 주체는 신기루며 코기토야 말로 신기루의 중심이다. 주체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타자적 형상(Gestalt)이기 때문이다.
- 개인 심리가 아니라 주체의 결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주체는 구조적으로 결여에 시달리기 때문에 욕망하는 주체가 되지만 욕망은 충족 불가능하기에 주체성은 근원적인 모순에 이해된다.
- 주체는 언제나 언어의 효과라는 말은 주체가 한갓 기호에 불과하거나 상징계의 일방적 작용을 지시하기 위한 언명이 아니다. 상징계(시니피앙)는 주체가 존재의 수준에서 안착할 수 있는 형식(예컨대 이름)을 제공한다. 시피니앙은 주체를 결정하며 주체는 시니피앙에서 구조를 취한다. 하지만 기표는 존재를 실현해주면서 동시에 배제한다. 이것이 빗금친 \$ 의 의미이다. 여기서 주체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이중적 의미(담론의 주어이자 배제된 것)를 전제해야 한다.
- 라캉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주체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스스로를 구성하는 구조적 계기로 파악한다.
- 탈중심성(ex-entricité): “나”(je)라는 것은 두 시니피앙 사이(빗금), 즉 지식의 바깥²⁾에 위치 - 주체란 지식에 대해 결핍된 것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과 데카르트의 의심하는 주체에 관한 이론³⁾을 자신의 주체이론에서 접합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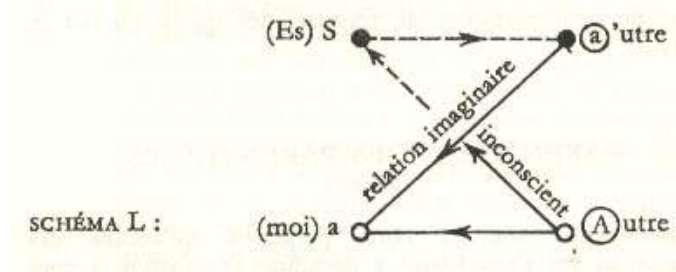
☞ **대타자⁴⁾와 욕망** : 욕망의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망은 언제나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대타자는 욕망의 원인일 뿐 아니라 진리의 장소로 가정된다. 대타자란 상상계의 타자를 넘어선 절대적 타자성을 말하며, 언어와 말의 장소이기도 하다. 라캉은 언어를 법에 비유하곤 한다. 법으로서 언어는 일상적 의미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질료로서 순수 기표의 차원을 말한다. 기표는 주체의 의지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법이 되며, 이차적인 의미화에 의해 주체의 욕망을 발생시키는 매개물이 된다. 법의 매개자로서 등장하는 대타자 형상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Nom du Père)이다. NP는 주체의 욕망을 이끄는 동인이자 목적인이 된다. 욕망의 의미는 대타자가 욕망하는 욕망이 된다. 그러나 대타자의 욕망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체의 욕망이기도 하다.

- 무의식은 주체를 초월한 대타자의 담론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그러나 욕망은 대타자의

2) “나(je)라는 것은 특별한 시니피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장소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세3, 310
3) 데카르트의 의식=자아= 대상화된 존재는 ‘je suis’의 실존적 진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그 본질이 허구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라캉은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하고 내가 사고하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로 정식을 전도한다. E, p. 517. (문자의 심급). je라는 것은 주체가 스스로를 알아보는 장소일 뿐이다.
4) 세 모습: 시선의 근원(욕망의 대상), 호명(법), 응답(진리)

욕망(인정에 대한 욕망)이면서 이를 거스르고자 하는 주체의 욕망이기도 하다.

- 대타자와 주체의 상호 관계는 L도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 욕망은 대상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자체를 욕망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형식에 불과하다. 또 대타자의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징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욕망의 기본 성격은 타자에 대한 의존성이 아니라 그것이 욕구(need)와 요구(Demand)사이의 틈에서 환유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에 있다. 언어가 욕망의 원인이지만 욕망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대타자는 욕망의 최종 해결사(데카르트의 신)가 아니다. 대타자의 결여야 말로 욕망을 환유적 운동 속에서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 욕망은 근원적 대상에 결합하고자 하는 주이상스를 지향하며 충동들도 그 양상으로 이해된다. 욕망이 주이상스를 대타자의 편에서 찾는 것이라면 충동은 두뇌 없는 몸, 파편화된 리비도의 순환을 말한다.

2 환상의 역할: 환상은 우리를 실재로부터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것과 대면하게 만드는 급진성이 있다. 실재에 대한 태도에 따라 환상을 존재 환상과 거울적 망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존재환상이 순수욕망을 토대로 삼는다면, 이데올로기 환상은 허위의식이 본성이다.

1) 존재의 환상: 욕망은 존재결여(lack of being)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환상에 기초해서 실재를 현실로 재구성 하면서 유지된다. 환상은 상상적이고 기만적인 미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무대화하면서 외상적 장면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결여된 존재인 주체는 환상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환상은 거세를 감추면서 동시에 무대화한다.

라캉은 환상을 $\$ \diamond a$ 로 공식화하는데 이를 풀면 거세된 주체 S가 욕망의 대상인 오브제 a 에 대해 \diamond (크거나 같다, 모자라거나 넘친다, 관계하면서 어긋난다 등의 의미)적인 변증법적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오브제 a' 는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이 되며, 순수형식에 가깝다. '오브제 a' 는 존재 결여를 감추면서 그곳에 여러 환상을 투영시키는 스크린이기도 하다. 정신분석은 환상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설정을 목표로 한다. 결여된 존재인 인간은 어느 정도는 방어적 기제로서 환상을 필요로 하지만 환상에 너무 매인다면 소외된 욕망의 순환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

환상은 실재의 영역을 덮은 채 상상계와 상징계에 의해 테두리 지워져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다. 환상은 주체를 실재의 위협과 그 분열의 효과로부터 동시에 보호한다. 대상 a는 한편으로 잃어버린 실재의 대상이며, 또 한편으로는 논리적 작용(분할 가능한 것) 대상이다.

“환상은 그 속에서 주체가 주인공인 상상적 장면이며, 소망이 방어과정에 의해 어느 정도 왜곡된 형식으로 성취됨을 표현한다.” Laplanche, Pontalis, 정신분석 사전, 환상편.

- 환상은 욕망과 법을 모두 표현한다. 분석을 통해 분석자는 원환상을 통과해야 한다.
- 환상은 주체와 객체의 결여 둘 다에 걸친다. 환상은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다. 이것을 지젝은 ‘objectively subjective’라고 불렀다.

2) 거울적 망상: 자아가 중심이 되고, 상상계적 작용인 나르시시즘과 오인에 근거해 구성되는 사회심리적 체계. 망상 속에서 주체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신념과 일치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허위의식에 사로잡힌다. 라캉에 따르면 망상 속에서 주체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에 휘둘리며, 왜곡된 상상계적 매트리스 속에서 허구적인 자유를 꿈꾼다.

- 망상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망상은 일종의 담론이며, 어떤 기표를 조직해온 의미화의 장도 포함한다. 라캉이 철학을 편집증에 비유하는 것도 의식의 절대성을 과신하기 때문이다. 편집증적 상상적 구조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의 작용도 망상으로 볼 수 있다.

예) 시장경제의 합리성. 칼 폴라니가 비판했듯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란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에 불과하다.

- 거울적 망상은 완전함, 조화, 이상성, 욕망의 충족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에 부합되는 사회현실을 그리기에 편집증적이다.

3 욕망의 윤리와 실재

1) 윤리

전통적 도덕이 쾌락을 따라 발전해왔다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윤리의 핵심은 쾌락에 대항하여 실재를 현재화 하는 것이다. 실재의 문제는 주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자아와 개인은 상상계의 구성물이지만 욕망의 실현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개체성(singularity)은 중요하다. 욕망을 통해 소외되지 않는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라캉은 세미나 11에서 소외와 분리의 도식을 통해 암시한다.

☞ 소외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와 맺는 관계는 언제나 틈과 소외시키는 긴장과의 관계를 말한다. 소외가 있다는 것은 상징계에서 시니피앙의 절대적 지배성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소외는 욕망의 조건이자 주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 두 가지 소외 : 상상계적 동일시 - 모호성과 상상적 일체감, 상징계적 동일시 - 타자적 구조를 전제하는 상징적 구성.
- 주체는 다만 생성되는 존재이자 행위(욕망) - 주체는 현존(반복) 과 부재(망각)의 되풀이 되는 작용이다. 생성의 주체는 주체분열이론에 의해서만 이해됨.
- 주체는 결핍이자 무⁵⁾ - “Le sujet est ce qui fait défaut au savoir” 세미나 20, 130 쪽. manque à savoir, manque à être. 세 범주가 무(주체)에 자리 잡음.
- 주체는 사라지는 것⁶⁾이다. - 지식의 가정된 주체만 담론 속에 남게 된다, 말이란 것은 주체의 구조를 드러내게 된다. 주체의 시체는 전미래⁷⁾, 사후작용에 의해 설명가능. 주체의

5) “욕망이란 주체 속에서 존재의 환유이고 팔뤼스는 존재 속에서 주체의 환유이다” 세미나 6권, 58년 12월11.

6) Lacan, S XX, p. 130.

분열 : 주체는 언제나 언표된 주체와 언표 행위의 주체로 분열된다.

• 소외는 언어와 이미지의 효과에 집착하여 타자의 구조에 편입되는 것을 말하며 주체의 구조적 운명이기도 하다. 주체가 분열(언표행위의 주체와 언표주체, 무의식과 의식, 상상계와 상징계 등)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가 발생한다. 하지만 라캉은 분리를 통해 스스로를 욕망의 주체로 세울 것을 강조한다. 분리란 상상계와 상징계에 의해 강요된 소외의 조건을 욕망의 현실로 바꾸는 주체의 변증법적인 작용을 말한다.

☞ 분리:

상징계 내의 결여는 그것을 채워야 할 당위성을 동시에 만든다. 세미나 7권에서 꽃병의 비유를 통해 기표(꽃병)가 공백과 그것을 채울 가능성을 동시에 만든다는 것을 언급한다.

• 분리는 능동적인 원환상 가로지르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타자의 공핍 뿐 아니라 주체의 공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상 가로지르기란 충만한 향유가 가능하다는 신화를 포기하고 결여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순수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리는 욕망이 결국 주체의 자기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분리를 통해 주체는 결여를 떠안으면서 스스로를 욕망하는 주체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욕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윤리와 결합되는데 정신분석이 말하는 윤리는 선이 아니라 순수한 존재향유의 의지를 말한다. 라캉은 이를 후기 프로이트가 남긴 경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강조한다.

(독어) Wo Es war, soll Ich werden.

(영어) Where the id was, there the ego shall be.

(정통주의) Le moi doit déloger le Ça.

(라캉) Lá où fut Ça, il me faut advenir.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도달해야 한다.

(핑크) Where it was, I must come into being.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에 대한 욕망이고, 욕망의 길은 칸트적인 정언명법이 지시하는 윤리의 길이기도 하다. 라캉은 죽을 때 “나는 집요했다. [...] 나는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2) 실재(real)의 힘: 실재란 언어와 이미지가 만드는 현실(reality)이 배제하는 원초적 현실이다. 실재란 언어화가 불가능⁸⁾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으며 현실의 안정성과 상상적 봉합(이데올로기)을 파열시키는 것이 실재이다.

• 상징적 질서를 비전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재이다.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개념의 안정성을 흔들고 주체의 소외를 일깨우는 것이 실재개념이며 정신분석의 윤리는 실재를 겨냥한다는 것에서 그 전복성과 역동성을 찾을 수 있다.

• 실재계의 대표적 표식은 물 (Ding, Chose)⁹⁾. 라캉은 욕망을 윤리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의 대상이 실재임을 세미나 7에서 강조한다.

• 실재는 상징계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돌아오고 저항한다.

• 실재는 주체의 물질적 토대 (성적리비도가 발원하는 몸)로 정의할 수 있다.

• 실재는 불안의 대상인데 상징적 작용인 반복성 가운데 침투해 주체와 조우(투게, tuché)하는 외상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7) “내가 현재 생성되어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직전에 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전미래 시제” E, p. 300.

8) “실재는 상징화가 불가능하다는 효과로 나타난다”. S, XI, p. 152.

9) 존재의 장소이자 근원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가정된 것.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어머니가 물의 대현물.